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2018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길표

2019년 8월

석사학위논문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2018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고 길 표

2019 년 8 월

#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지도교수 허 대 식

고 길 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06 월

고길표 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년 06월

The Analysis of Music Program for Free  
Semester in Middle School  
- Focusing on 2018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Middle School -

KO, KIL-PYO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ur, Dae-Sik , Prof. of Music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2019. 8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국 문 초 록

#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 고 길 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허 대 식

본 논문의 목적은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조사 및 연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2015)과 제주도 교육청의 자유 학기 운영계획(2015, 2018)과 제주시 교육청의 자유 학기(학년)제 운영계획(2018) 외에도 각 학교의 2018학년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 자유 학기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의 자유 학기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과 자유 학기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의 분석 및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첫째,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대부분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 2학기에 운영하였고, 시수 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170시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둘째,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16개교는 혼합모형(주제 선택+예술·체육 혼합형)으로 운영하였고, 10개교에서 기본 모형, 3개교에서는 자유학년제 시범학교, 1개교에서는 주제 선택 중점 모형으로 운영하고 적용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정책이다.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이상적인 교육정책으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보다는, 본 연구와 같이 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로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유학기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방법 .....	2
3. 연구 제한점 .....	3
4. 선행 연구 고찰 .....	3
<b>II. 이론적 배경</b> .....	6
1. 자유학기제 .....	6
1) 자유학기제 개념 및 시행 목적 .....	6
2)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	6
3)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	7
2. 자유학기제 운영체제 및 모형 .....	8
1) 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	8
2)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	9
<b>III.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b> .....	12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과정 .....	12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	13
3. 자유학기제 적용 시수 및 운영 모형 .....	16
<b>IV.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 분석 및 개선방향</b> 20	
1. 음악 프로그램 분석 .....	20
1)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 .....	20
2)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	26
3) “예술 · 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 .....	27
4)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 .....	33
2.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	37

1)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	37
2)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	40
3) “예술·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	41
4)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	42
<b>IV. 결론 및 제언</b> .....	44
<b>참고문헌</b> .....	47
<b>ABSTRACT</b> .....	48

## 표목차

<표 1>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	9
<표 2> 2018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현황 .....	14
<표 3> 학교별 자유학기제 적용 시수 및 운영 모형 .....	16
<표 4> 고산중학교 진로 체험처 .....	21
<표 5> 노형중학교 진로체험 활동 .....	23
<표 6> 노형중학교 진로체험 활동 .....	23
<표 7>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 .....	25
<표 8>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	26
<표 9> “예술·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 .....	32
<표 10>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 .....	36
<표 11> 대구지역 중학교 음악 관련 지원 지역단체 및 자치단체 .....	38

## 그림목차

<그림 II-1>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	7
<그림 II-2> 자유 학기 활동 운영 모형 .....	11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적절한 적성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에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교육부는 201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42개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811개교, 2015년 2,551개교를 운영하여 전국 중학교의 80%에 달하는 연구·희망학교를 운영하였다(교육부, 2015).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8년부터는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하였고, 총괄식 지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취도는 미산출(이수 여부만 'P'로 입력) 학생 중심 수업 및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 및 성장과 발달 등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170시간 운영으로 자유학년제를 51시간을 추가 운영하여 221시간 이상 확보 운영하였다. 자유학년제 운영학교는 예산이 지원되며 고입전형에 1학년 모든 학기가 교과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2018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제주도 교육청, 2018).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뒤처지지 않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통해 모두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부적응 및 적절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TY)는 중등교육과정(Second Level 5년부터 6년까지) 중에서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주니어 과정(Junior Cycle, JC)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시니어 과정(Senior Cycle, SC)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이다. 전환학년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15세부터 16세까지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된다. 전환학년제는 1년간 학생들에게 무시힘의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서울교육 웹진, 2013).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고, 2018년부터 전국 중학교(3,120개교) 중 1,500여개교(46%)가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로 늘린 “자유학년제”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교육부, 2019).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자유 학기 활동 영역과 내용으로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운영된다.

현재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지는 2년이 지났다. 2018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에서 이루어졌던 음악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어 왔는지 분석하고,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4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수업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수업 운영에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2018년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계획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들의 “교육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수업 운영을 조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과 자율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도 부분적으로 함께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탑재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와 “교육계획서”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 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 및 인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2018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 4. 선행 연구 고찰

자유학기제 시행과 운영에 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2013년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여러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자유학기제가 개선해야 하고 발전해나가야 하는 방법을 2018년 현황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 주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자유학기제 각 지역 음악 프로그램 분석 및 교사와 학생의 설문 인터뷰 내용 자료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8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의 자세한 운영현황과 발표 현황의 수집 자료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개선방향을 광범위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박수현은(2015) 대구광역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거점학교의 운영계획서와 운영 보고서를 통해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분석과 더불어 자유 학기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음악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학교 운영계획서와 운영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운영 보고서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배제하였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학교 현황 등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다). 자유학기제 교육 4개 영역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과 지역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대구지역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은(2015) 자유 학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적 운영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였다. 교사들은 평가 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지원 환경 측면에서는 인력 풀 지원과 체험처 확보 지원 등에서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수준과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유 학기와 일반 학기 간의 연계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과 교사연구회 등을 통한 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제고 노력이 뒷받침 되도록 결과를 산출하였다.

조슬기는(2017)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들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자유 학기에서 음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413개교를 대상으로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16년에 자유 학기를 경험한 551명의 학생들과 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 주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의 지원 필요성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제공해야 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정진경은(2018) 자유학기제에 관한 다양한 문헌 자료 고찰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들의 ‘2017년 학년도 교육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2017년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자유 학기 활동(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프로그램들을 탐색하여 분석함으로써 음악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김민경은(2019) 2017년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대구지역 중학교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알아보기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구지역 중학생 524명과 음악교사 58명을 대상으로 대구지역 음악 프로그램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각 지역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들의 주된 방향은 각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의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필요함을 느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 분석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아 문헌고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심의 자유학기제 현황 조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에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수업 프로그램과 발표 현황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반영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유학기제

#### 1) 자유학기제 개념 및 시행 목적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경쟁에서 벗어나 시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지게 하여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제도이다(박수현, 2015). 과도화된 입시경쟁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만족도 및 성취감은 낮아지고 있다. 공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소질 계발 및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해소시키고자 교육부에서는 2013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시안)을 발표하여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는 1학년 1학기, 2학기와 2학년 1학기까지 운영된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 동안 중간,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취 수준 확인을 위하여 수업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두는 수행평가와 형성평가를 통해 협력과 배려의 학습문화를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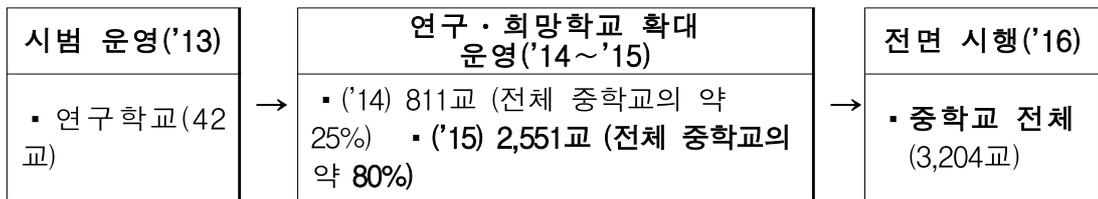
#### 2)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2012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여 대중 앞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부의 국정업무 보고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에는 “진로체험”이란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점차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혁신” 이를 통한 ‘교육 전반의 변화’로 목표점이 선회되어 갔다(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교육제도이다. 교육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4가지를 중

심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며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는 2013년 2학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811개교, 2015년에는 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어 전국 중학교 수의 80퍼센트에 달하는 2551개교로 연구·희망학교를 확대 운영되었고, 2016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어 3,204개교에서 운영되었다.

<그림 II - 1>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교육부, 2015)



### 3)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학교장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 선택에 있어서 유연하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 학생의 선호하는 운영 학기를 설문조사나 운영회 협의 등을 통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기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정서적 변화 및 인지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여 꿈과 끼의 탐색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의 판단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에서 한 학기를 선택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학교장은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자유학기제 운영체제 및 모형

### 1) 자유학기제 운영 체제

자유 학기 활동 운영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전에는 기본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오후에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교육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표 1>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유 학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모형이다. 둘째, 자유 학기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롭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체험과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편성해야 한다. 셋째, “자유 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 활동을 균형 있게 번갈아가며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하고, 학생의 희망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유 학기 활동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은 전통적인 수업을 이루는 일반 학기와는 다르게 교과 수업을 정해진 시수 안에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해야 하며 자유 학기 활동이 170시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박수현, 2015).

<표 1>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교육부 2015)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방법 참여와 활동 중심	평가 및 기재 과정중심 평가
오전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자율성 제고</li> <li>• 교육과정 재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융합 수업</li> <li>•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실험 · 실습 · 프로젝트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li> <li>•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 실시</li> </ul>
오후(자유학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활동</li> <li>• 주제선택활동</li> <li>• 예술 · 체육활동</li> <li>• 동아리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기반한 프로그램 편성</li> <li>• 능동적, 자기주도학습 경험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및 협력 정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 평가</li> <li>• 학생의 꿈 · 끼 관련된 활동 내역 위주로 학생부 기재</li> </ul>

## 2)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자유 학기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에 기반하여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활동이다(교육부 2016). 자유 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활동, 예술 · 체육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활동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진로탐색 활동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교육부 2015). 예로는 진로검사, 초청 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활동과 직업 탐방, 모의창업 등이다.

둘째, 주제 선택활동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예를 들어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행복교육, 금융+경제교육, 헌법+법질서 교육, 인성교육, 스마트폰 앱 등 여러 교과 융합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협의를 통하여 수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형태이다.

셋째, 예술·체육활동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예체능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예를 들어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작사, 작곡, 벽화 그리기, 디자인,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 등 교내 학생들의 예술적 감각을 향상시키고 경험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넷째,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학생들의 자율성, 지속성, 자치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가진 특기를 개발한다(교육부 2015). 예를 들어 문예 토론, 라인댄스, 과학실험, 천체관측, 사진, 동영상, 관악부, 오케스트라, 그룹사운드, 향토, 예술탐방 등 학생들의 자치성을 존중하며 소질 계발 및 학생들의 흥미분야를 개발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운영한다.

<그림 II-2> 자유 학기 활동 운영 모형(출처 :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2015)



### Ⅲ.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과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 2013년도에 시범연구학교로 운영되었던 한라중학교와 서귀포중앙여자중학교의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에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것에 비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찍 자유학기제 과정을 전체적으로 시작하였다. 2017년도에는 자유 학기-일반 학기 연계 운영을 한림 여자중학교와 노형중학교 2개교에 시행되었고, 2018년부터는 자유학년제 운영학교로 신창중학교, 안덕중학교, 애월중학교, 저청중학교로 4개교가 운영되었다. 2018년 자유 학기-일반 학기 연계 운영학교로는 노형중학교, 서귀포중앙여자중학교, 제주중앙중학교, 중문중학교, 한림 여자중학교로 5개교가 운영되었다.

운영성과로서 10개의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6개의 교사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우수 수업사례 자료집을 45개교에서 발간하였으며 102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탐라교육원에서 자체 제작한 자유학기제 사이버교육을 통해 도내 중학교 교장 및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는 1회 4시간에 이루어졌고, 교장과 담당교사 90명에게 실시되었다. 자유학기제 활동 중심 수업 확산을 위한 행복수업 교사 직무연수로 1회 15시간 교사 45명에게 실시되었다.

“진로탐색 활동”을 위한 진로체험처는 제주진로직업박람회와 교육청/직속 기간 진로체험의 날과 연계 지원을 한다. 도청 연계 자유학기제와 도 외 진로체험은 제주도 내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 220명 희망자로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교관 체험(한국외국어대학교), 이공계 체험(카이스트) 체험처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학교 자체적으로 지역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있다.

“주제 선택 활동”을 위한 도교육청 활동으로 2월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수업 및 융합 수업에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 실시 방법으로는 탐라교육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로 자유학기제 교과별 수업 및 평가 방법과 융합 수업에 대해서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각 학교마다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여러 교과 연계 및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체육활동” 교과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교육(악기, 뮤지컬, 연극 등)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음악 관련 단체 견학 및 외부 예술 단체 견학을 통하여 발표회와 연관하여 수업의 폭을 확충시키고 전문 예술강사와 협업으로 전문 예술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자율적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예술강사와 협업으로 수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 학기 동아리 활동과 자율동아리활동의 폭넓은 활동으로 전시 및 발표회를 각 학교마다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건전한 예술동아리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2018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을 보면 자유학기제 도입한 30개교 중학교를 살펴볼 수 있다. <표 2>

교육청에서는 오전에 일반 교과를 운영하고 자유학기제를 오후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 적용 학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제주시 교육청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30개교 모두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선택하여 운영하였다.

<표 2> 2018학년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 현황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

학교명	자유학기제 적용학기	자유학기제 적용학년 학급수	자유학기제, 전학년, 전체학생 수	소계
고산중학교	2학기	1	(남자1명,여자11명)	12명
귀일중학교	2학기	4	1,2반 남자(27명,28명)	99명
			3,4반 여자(22명,22명)	
김녕중학교	2학기	1	남자14명,여자10명	24명
노형중학교	2학기	12	남자5개반(160명)	372명
			여자7개반(212명)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2학기	8	남자4개반(117명)	226명
			여자4개반(109명)	
세화중학교	2학기	3	남자(31명)	남녀합 반 62명
			여자(31명)	
신성여자중학교	2학기	7		201명
신엄중학교	2학기	2	남자30명	남녀합 반 55명
			여자26명	
신창중학교	자유학년제 시범학교	1	남자(10명)	16명
			여자(6명)	
아라중학교	2학기	8	남자5개반(152명)	243명
			여자3개반(91명)	
애월중학교	자유학년제 시범학교	3		68명
오현중학교	2학기	7		210명

오름중학교	2학기	8	남자(119명)	234
			여자(115명)	
우도중학교	2학기	1	남자(7명)	10명
			여자(3명)	
저청중학교	<b>자유학년제 시범 학교</b>	1		11명
제주 동여자중학교	2학기	8		231명
제주동중학교	2학기	7	남자(90명)	206명
			여자(116명)	
제주시중학교	2학기	11	남자(153명)	356명
			여자(203명)	
제주여자중학교	2학기	7		200명
제주제일중학교	2학기	10		308명
제주중학교	2학기	7		184
제주 중앙여자중학교	2학기	6		163명
제주중앙중학교	2학기	12		359명
조천중학교	2학기	4	남자(34명)	97명
			여자(63명)	
추자중학교	2학기	1	남자(5명)	7명
			여자(2명)	
탐라중학교	2학기	8	남자(144명)	233명
			여자(89명)	
한라중학교	2학기	13	남자(184명)	394명
			여자(210명)	
한림여자중학교	2학기	2		54명
한림중학교	2학기	3		79명
함덕중	2학기	3	남자(45명)	84명
			여자(39명)	

### 3. 자유학기제 적용 시수 및 운영 모형

2018학년도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의 2018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교육 운영계획서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별 자유학기제 적용 시수 및 운영 모형에 알아보고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운영 모형으로는 주제 선택+예술·체육 혼합형으로 총 16개교가 운영을 하였다. 다음으로 기본 모형으로는 10개교가 적용하였고, 주제 선택 중점 단일 모형으로는 제주여자중학교 1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 나머지 3개교 신창중학교, 애월중학교, 저청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표 3> 학교별 자유학기제 적용 시수 및 운영 모형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 육활동	동아리 활동	소계	운영모형
고산중학교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귀일중학교	34	51	51	34	170	기본모형
김녕중학교	34	51	68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노형중학교	17	68	68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54	63	51	12	180	기본모형
세화중학교	20	68	68	17	173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신성여자중 학교	30	72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신엄중학교	36	68	51	15	170	기본모형
신창중학교	36	85	68	34	223	자유학 년제 시범학 교
아라중학교	34	51	51	34	170	기본모형
애월중학교	1학기(5), 2학기(56)	1학기(51)	1학기(17), 2학기(68)	1학기(13), 2학기(13)	223	자유학 년제 시범학 교
오현중학교	41	51	51	27	170	기본모형
오름중학교	34	51	68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우도중학교	25	51	68	34	178	기본모형
저칭중학교	1학기(8) 2학기(9)	1학기(34) 2학기(34)	1학기(34) 2학기(34)	1학기(27) 2학기(138)	1학기(103) 2학기(138)	자유학 년제 시범학 교
제주동여자 중학교	51	34	68	17	170	기본모형
제주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동중학교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 서중학교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 여자중학교	34	68	34	34	170	주제선택 중점 단일모형
제주 제일중학교	15	75	68	12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중학교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 중앙여자 중학교	17	85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제주 중앙중학교	17	68	68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조천중학교	34	34	68	34	170	기본모형
추자중학교	34	51	68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탐라중학교	33	65	51	21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한라중학교	34	51	51	34	170	기본모형
한림 여자중학교	51	51	51	34	187	기본모형
한림중학교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함덕중학교	34	68	51	17	170	주제선택 +예술· 체육 혼합형

#### IV.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 분석 및 개선방향

##### 1. 음악 프로그램 분석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에 탑재되어 있는 2018 교육 운영계획서 및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교육 운영계획서를 참고하면서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의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현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1)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

각 학교마다 진로탐색 활동은 교내에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외활동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공기업(경찰서, 소방서)을 방문하여 체험 및 직업인과의 대화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도내에서 제주 직업박람회는 진로체험활동으로 제주도 내 중학생 1학년 학생 6,000명이 체험을 하였다. 교육청 직속기관 진로체험의 날을 만들어서 도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성이 되었다. 음악 프로그램 관련 진로탐색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위탁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다. 대상으로는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68명(4개 분야별 각 17명)으로 구성되며 기간은 2018년 9월 4일(화)부터 9월 5일(수)까지 1박 2일 일정이다. 장소는 단국대학교였고, 연기, 뮤지컬, 실용음악(보컬), 플라워 디자인 4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이론수업 1회(2시간), 실기수업 2회(4시간), 미술관 관람(2시간), 공연 관람(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로탐색 활동” 내에서 음악 관련 외에 운영되는 수업에서는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 전문 직업인과 함께하는 진로체험활동, 과 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직업박람회와 진로캠프, 진로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고산중학교에서는 고산 우체국 기관 체험 및 체신 공무원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한경 수협, 고산농협 경제교육 및 금융 관련 직업 이해 및 준비과정 등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의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남부 화력발전소에 방문하여 기관 견학 및 발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를 하였고 제주고산기상대 기관 견학 및, 기상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및 전문 직업인과의 대화를 하였다.

2018년 10월 18일 개최된 제주진로직업 박람회 “꿈찾으멍 만들멍 나누멍”에 참가하였고 대학 탐방으로 한라대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체험을 하였다.

<표 4>고산중학교 진로 체험처

구분	기관명	활용내용	활용분야
MOU체결기관	한경연합청년회	리더쉽 배양 교육, 인성지도	인성지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한국뷰티고등학교	미용체험(피부,헤어,네일, 메이크업)	진로체험
	한경면사무소	기관 견학 공무원 직업 탐색 및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탐색
	한경119센터	119센터에서 하는 일 체험	진로체험
	고산우체국	기관 견학, 체신공무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직업인과의 대화	진로탐색
	뷰티고 행정실	교육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및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탐색
	한경수협	경제 교육, 금융 관련 직업 이해 및 준비 과정 등 전문직업인과의 대화	진로탐색
	고산농협	경제 교육, 금융 관련 직업 이해 및 준비	진로탐색

		과정 등 전문직업인과 대화	
	고산농협하나로마 트	기관 견학 및 하는 일, 서비스관련 직업 탐색	진로탐색
	남부화력발전소	기관 견학, 발전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직업인과 대화	진로탐색
	제주고산기상대	기관 견학, 기상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직업인과 대화	진로탐색

노형중학교에서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경기 일원으로 도 외 진로체험을 다녀왔다. 고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견학하고 mbc 직업 아카데미에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미리 경험해보는 직업체험도 실시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 “꿈찾으명 만들명 나누명”에 참가하였고 한라체육관 및 야외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진로검사 및 상담, 고입정보관, 진로 직업 체험관, 특성화고 체험관, 진로동아리 체험관, 미래직업 체험관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한라대학교에 방문하여 학과별 진로직업체험을 하였고 폴리파크에 방문하여 공연문화 및 진로직업체험을 현장체험형으로 체험하였다.

2018년 11월 28일 교내 1층 진로체험실에서 1학년과 2학년 희망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육군 간부, 사관학교 진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시부터 1시간가량 직업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명예”로 시작하여 현실적인 근무조건과 경제적인 여건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안내가 되었으며, 특히 장교와 부사관의 단순한 차이뿐 아니라 장단점을 잘 요약하여 설명이 되었으며 “병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세세한 교육까지 하였다.

<표 5> 노형중학교 진로체험활동

일시	프로그램	장소
8/27부터 31까지	In Asia 진로교육	교실
9/3부터 14까지	행복주머니 경제교육	교실
10/22부터 11.3까지	스토리텔링 창작 진로교육	교실
10/15부터 18까지	도의진로체험	서울 MBC아카데미 드림잡스
10/19	제주 진로직업 박람회	한라체육관
11월 중	자유학기 진로캠프	미정
수시	전문직업인 특강	교실

<표 6> 노형중학교 진로체험활동

연번	일정	체험처	체험내용	체험유형	참여인원
1	/	도내 4·3 유적지 및 국제보호지역	제주의 환경에 대한 역사, 인문, 환경 교육	현장체험형	372
2	/	한라대학교	학과별 진로직업체험	직업실무체 험형	372
3	/	폴리파크	공연문화 및 진로직업체험	현장체험형	372
4	/	노형중학교	협동심, 리더십 향상을 위한 '공감' 프로그램	현장체험형	372
5	수시	노형중학교	세계화와 다문화	강연형	신청자
6	2학기	노형중학교	'노형 DREAM 노트'	스스로 학습형	372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 기업들이 연계하여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체험처를 확보하였으며, 전문 직업인을 교내로 초청하여 강의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진로탐색 활동”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진로탐색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된 곳은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제주 동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추자중학교 총 5개교이다. <표 7>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는 2018년 11월 7일 진로캠프를 교내에 여러 직업인들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였다. 음악 관련 직업으로는 힙합 래퍼 직업 체험으로 1학년 5반 학생들이 “힙합 래퍼”라는 직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들으며 힙합과 래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그 후 힙합 음악을 감상하였다. 다음으로는 “랩으로 표현해보는 나”라는 활동으로 랩 가사를 작성하고 직접 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캐리커처 디자이너, 특수분장사, 조향사, 패션디자이너, 건축가, 푸드스타일리스트, 마술사, 게임 개발자, 리포터, 방송작가, 신문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미지 컨설턴트, 제품 디자이너,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직업인들을 초청하는 수업이 있었다.

신성여자중학교에서는 2018년 9월 4일(화)에서 9월 6일(목)까지 한국잡월드에서 여러 직업체험, 국립과천과학관에서의 창의아카데미 체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진로체험을 가졌다. 이 활동은 도 외 진로체험으로 다녀온 프로그램이었다. 음악 관련 프로그램으로 대학로 엘림홀로 현장견학하여 뮤지컬 관람 및 배우와 인터뷰 그리고 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 체험과 연계하여 2018년 12월 5일에서 12월 7일까지 각 반 뮤지컬 공연 발표를 연계하여 수업을 운영하였다.

제주 동중학교에서는 2018년 7월 12일(목) 1 - 2 교시 각 학급 교실에서 직업인을 초청하여 수업을 하였다. 1학년은 간호사, 메이크업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아나운서, 뮤지컬 배우, 업사이클링 작가, 바리스타 강의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학년은 간호사, 약사, NGO 활동가, 경찰, 소방관, 교도관, 바리스타, 3학년은 간호사, 네일 아티스트, 캘리그래피스트, 미디어 프리랜서, 금융인, 사진작가, 청년창업가, 생태관광 여행사 강사들이 초청이 되어서 수업을 하였다.

제주여자중학교에서는 2018년 9월 21일(금) 제주 시내에 있는 섬아이 뮤직아트 센터에 학생 28명이 방문하여 직업 실무 체험형으로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내용으로 방문 체험을 하였다.

추자중학교에서는 2018년 10월 29일(월) 5교시부터 7교시까지 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에서 1학년(자유 학기) 2, 3학년이 달나무 신나는 예술 여행(주제가 있는 사진 촬영 배우기, 이야기 있는 버블 여행, 인형 뮤지컬 관람)을 하였다. 2018년 11월 16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수덕 도서관에서 “놀멍 쉬멍” 행복 진로 체험을 1학년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내용으로는 종자 만들기, 미래의 명함 만들기, 전자피아노 연주, 십자말풀이, 학과 소개 등을 하였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1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 운영되었다.

<표 7>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학교	진로캠프 - 힙합레퍼초청
신성여자중학교	뮤지컬 발표회와 연계한 음악수업 : 뮤지컬배우와의 인터뷰(대학로 엘림홀),현장견학형
제주동중학교	진로캠프 - 전문직업인특강 (뮤지컬배우)
제주여자중학교	진로체험 - 섬아이뮤직아트센터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직업실무체험형 학생28명 참여
추자중학교	진로체험 - 1.신나는 예술여행 2.놀멍 쉬멍 (교내활동)

2)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교과연계와 학생 흥미·관심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 운영으로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 및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오름 중학교·제주동 여자중학교 2개교에서 “주제선택 활동” 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하였다. <표 9>

“주제 선택 활동” 수업 운영에 있어서 교과 특성에 따라 블록타임제<sup>1)</sup>를 적용하였다. 신창중학교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음악”이라는 주제로 격주 화요일 2시간 블록타임제를 적용하여 “우쿨렐레” 수업을 운영하였다. 외부강사 없이 음악교사로만 수업되었고, 총 17차시로 시간이 적용되었다.

오름 중학교의 경우 화요일 6교시에서 7교시 블록타임제를 적용하였다. 음악 수업내용으로는 동화와 팝송으로 만나는 영어라는 주제로는 팝송 가사 분석과 노래 부르기, 동화 속 내 모습 찾아보기로 수업활동을 하였고 영어 1단위 감축하여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였다.

제주 동여자중학교에서는 목요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난타 수업으로 ‘주제 선택 활동’이 블록타임제로 수업이 개설되었다. 조정 교과로는 도덕 1단위 감축하여 주당 1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였다.

<표 8>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

학교	음악 프로그램
신창중학교	생활음악, 우쿨렐레
오름중학교	동화와 팝송으로 만나는 영어(영어 1단위 감축하여 주당 1시간 운영), 팝송 가사 분석과 노래 부르기, 동화 속 내 모습 찾아보기 (블록타임제)
제주동여자중학교	난타반 ( 도덕1단위 감축), (블록타임제)

1) 블록타임제는 기존의 1차시 수업을 연속적으로 2차시까지 연속으로 붙여 수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생 중심, 활동 중심 수업에 적합하다. 1차시 수업에서 부족한 수업을 블록타임제로 적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면 학습의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예체능 수업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수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계상 블록타임은 자유 학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며 장단점을 잘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예술·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의 수업 편성으로 예술(음악, 미술)·체육으로 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음악 관련 수업 프로그램이 많았다. 수업 운영에 있어서 예술(음악, 미술)·체육활동으로만 운영되어있기 때문에 예체능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낸다. 또한 블록 타임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통합·심화된 형태로 운영되며 기존의 예술·체육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수업내용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교육내용을 고안하여 제공하게 된다. 예술·체육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에서는“생활음악”이라는 주제로 우쿨렐레, 클래식 기타, 오카리나, 플루트, 관악 오케스트라, 밴드 등 많은 기악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 밖에도 뮤지컬과 합창 수업이 있었고 국악 관련 수업도 있었다. 예술·체육활동에서는 음악수업과 체육수업이 연계하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있었다. <표 9>

고산중학교는 “애창곡 연주활동을 통한 기타 활동”으로 실용음악 수업이 편성되었다. 예술·체육활동 (실용음악) 은 목요일 7교시로 편성이 되었으며 금요일 6교시에서 7교시에는 예술·체육 (창작 스포츠) 활동으로 편성이 되었다. 외부강사 없이 교사의 운영으로 우쿨렐레와 오카리나를 배우는 기악 활동 중심 수업이다. 자율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음악수업과 연계하여 교내 작은 음악회 발표를 한다. 기악 프로그램을 통해 표현능력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학생들의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귀일중학교는 “봄웨커 연주하기”를 배우는 수업으로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교내 체육관에서 자유학기제 발표회를 하였다. 김녕중학교는 “생활음악”에서 플루트 앙상블 수업을 운영한다. 월요일 1교시에 수업을 하고 2교시에는 “생활미술” 활동을 한다. 수요일 5교시에는 “점프 밴드”라는 수업을 하고 금요일 6교시에는 학교스포츠클럽(예술체육) “얼티미트” 수업을 한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서 1인 1악기 연주활동으로 플루트 수업을 통해 함께 어울려 합주하는 법 등을 익힌다. 노형중학교는 예술·체육 활동 I에서 화요일 6교시에 “우쿨렐레” 수업을 운영하였다. 화요일 7교시에는 예술·체육 활동 II에서 “미술로 여는 세계” 수업을 운영했다. 목요일 6교시에는 예술·체육 활동 III에서 “라케스민턴” 활동을 하였고 목요일 7교시에는 예술·체육 활동 IV에서는 스포츠클럽활동을 하였다. 예

술·체육활동 운영 팀으로는 미술교사 2명, 음악교사 3명, 체육교사 6명 운영팀이 구성되어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창조적 자기표현 활동을 통해 인지적, 창조적 자기표현 활동으로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인 면의 균형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수업 고안 및 적용을 모색하였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는 “생활음악” 클래식 기타 수업을 하였다. 총 17차시로 운영이 되며 음악수업과 관련하여 1학생 1악기 연주 실천으로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수업이다.

신성여자중학교는 체육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수업을 12차시로 수업을 계획하고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8월 3-4주 9월 2-4주 공연예술의 기초라는 주제로 뮤지컬, 무용, 연극의 이해와 감상을 하고 발레의 기본자세 정렬, 발레 기본 팔 다리 동작 익히기 연극의 자세 및 발성 익히기 개별학습으로 수업을 하였다. 10월 1-4주에는 모듬 및 뮤지컬을 선정하여서 연극놀이로 연극 이해하기 모듬 및 역할 나누기, 뮤지컬 장면 선정하기 (군무, 개인 연극 포함) 뮤지컬 분석, 모방 및 재구성을 협동학습으로 하였다. 11월 1-4주 뮤지컬 연습 및 공연을 준비하며 뮤지컬 15분 모방 및 재구성하기 의상, 분장, 헤어, 조명등 공연예술에 필요한 장치 계획 및 준비하기 뮤지컬 총연습 및 뮤지컬 공연 발표를 협동학습으로 하였고 12월 4주 평가 및 감상을 하며 동료 및 자기 평가, 동영상 촬영 및 감상을 개별학습으로 하였다. 음악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숲속의 메아리”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수업 프로그램을 교사로서만 담당하여 12차시로 운영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8월 3주부터 9월 2주 까지는 오카리나의 역사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주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평가는 개인 및 모듬별 전체 합주 형태로 교사가 개인 및 모듬별로 평가를 한다. 신임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에서 국악(영남 사물놀이 연주하기) 시간은 음악과 연계된 우리 가락의 이해와 사물놀이의 기본 및 변주 타법, 장단의 특징을 이해하며 사물놀이 악기 연주를 통해 조화와 화합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서 음악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수업을 하였다. 배웠던 국악기 및 음악시간에 배웠던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소질 계발 및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었다.

신창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에서 “생활음악” 과 “생활미술”수업을 하였다. 격주 화요일 2차시씩 블록타임제로 운영을 하였고 음악교사와 미술교사가 외부강사 없이 수업을 운영하였다. “생활음악”시간에는 우쿨렐레 연주를 하였고, “생활미술”시간에는 한지공예 및 조명등 만들기를 하였다. 예술·체육활동은 체육, 예술은(음악, 미술)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였고, 평가로는 “성취도”란에는 “P”를 입력하고 “원점수/과목 평균 (표준편차) 란” 은 공란으로 두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모든 과목과 학생에 대해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아라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에서 음악 수업 프로그램은 우쿨렐레, 클래식 기타, 오카리나반으로 모두 기악 중심 활동이었다.

에월중학교는 “학급 음악회”의 프로그램명으로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클래식 기타 중 한가지 악기를 선택하여 수업을 하고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담당하여서 수업 운영한다. 2018년 12월 19일(수) 4교시 음악실에서 3-2반 학급 음악회를 개최하여서 예술·체육활동에서 다양하게 배웠던 악기들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였다. 오현중학교는 “Play the music!”이라는 학급별 기악 연주로 교사가 담당하고 개인 및 모둠 평가로 연주 및 발표를 하는 예술·체육활동 수업을 운영하였다. 이외에도 New 스포츠 - 다양한 뉴 스포츠 종목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티볼 - 티볼 종목의 이해와 타격 및 수비에 실기 교육과 축구 - 축구 경기의 이해 및 드리블, 슈팅 실기교육과 농구 - 농구 경기의 이해 와 점프 슈트 및 드리블 실기교육을 실시하였다. 음악에 취중 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학생이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져서 운동 위주의 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이 되어있었다.

오름 중학교는 “소리로 어울리는 마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6교시에 이루어지는 우쿨렐레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고 음악수업 연계 프로그램이었다.

코드네임을 이해하며 우쿨렐레의 여러 가지 주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악곡을 노래하면서 악기로 연주하는 프로그램으로 음악 1단위 감축하여 외부강사를 채용하여서 수업을 운영하였다. 음악시간에는 우쿨렐레를 이용하여 연주와 합주를 하고 감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참여 및 태도 평가 기본 코드 및 주법

으로 관련곡 연주 평가를 하였다.

저청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은 2학기에 “록 밴드”를 34차시로 운영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록 밴드” 합주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예술 분야 비전설계를 하며 2시간 블록타임제로 교사와 외부강사가 운영을 한다. 1 학년 학생이 총 10명으로 많지 않은 인원으로 이루어져서 “록 밴드” 활동도 예술·체육활동으로 가능하였다.

제주 동여자중학교에서는 예술·체육활동에서 “생활음악”이라는 주제로 우쿨렐레 연주를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2019년 1월 8일 (화) 13:30분부터 15:30분까지 교내 체육관에서 자유 학기 발표회에서 우쿨렐레 앙상블로 연가, 피노키오, 제주도 푸른 밤을 발표하였다.

제주 동중학교에서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오케스트라(합주)와 클래식 기타반을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운영하였다.

제주 서중학교에서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신나는 기악합주로 담당교사가 운영하며 총 17차시로 이루어져 수업을 운영하였다. 12월 꿈·끼 탐색 주간 활용 - 자유 학기 운영 종합발표회를 하였다. 제주 제일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클래식 기타” 프로그램으로 기타 스케일 기본 포지션을 바탕으로 작은별, 고향의 봄, 에텔바이스, 로망스 악곡을 박자, 리듬, 템포, 바른 운지법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악곡의 가락의 느낌을 살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음을 표현하여 여러 가지 노래를 변주로 잘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개별학습 및 모듈별 협력 학습으로 수업 참여도 및 기타 연주로 평가를 한다. 교사와 외부강사로 수업을 운영하고 제주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으로 합창 수업을 운영하여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아남 예술제를 통하여 발표회를 하였다.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생활음악”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였다. 총 17차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제주중앙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우쿨렐레를 연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우쿨렐레의 기본 반주 법을 익혀 대중가요 및 간단한 노래의 반주를 하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였고 총 17차시로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조천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수많은 나, 우리”라는 주제로 하모니 합창과 기악합주를 하였다.

추자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생활음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카리나, 관악기,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음악교사로만 운영이 되었으며 총 17차시로 이루어져 있었다. 격주 수요일 음악시간과 미술시간이 번갈아가며 블록타임제로 운영하였다.

탐라중학교는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클래식 기타”와 “합창” 수업을 하였습니다.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고 2019년 1월 4일 금요일 교내 체육관에서 자유 학기 발표회를 하였다.

한라중학교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클래식 기타”와 “합창” 수업을 하였다.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고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교내 체육관에서 제11회 한라예술제에서 1부에 자유 학기 발표회 형식으로 클래식 기타와 합창으로 발표회를 하였다.

한림 여자중학교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클래식 기타” 수업을 하였다. 매주 화요일 6교시부터 7교시까지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12월 28일 금요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내 난향관에서 다양한 과정의 자유학기제 발표회를 하였다.

한림중학교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은 “국악”을 수업하였다. 매주 목요일 5교시에 수업을 하였으며 음악교사가 수업을 운영하였다. 생활 속 노동요와 민요 부르기 및 표현활동으로 평가 방법은 개별, 모둠별로 평가하였다. 10월 13일 오후 2시 탐라문화광장에서 탐라 문화제에 참가하여 “명월성 쌓는 소리”로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표 9> “예술·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

학 교	음악 관련 프로그램
고산중학교	실용음악 (기악) 반
	애창곡 연주활동을 통한 기타 활동 (기악)
귀일중학교	북웨커 연주하기
김녕중학교	“생활음악” 플루트 수업 (기악)
노형중학교	“생활음악” 우쿨렐레 (기악)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생활음악 클래식 기타 (기악)
신성여자중학교	(체육과연계프로그램) 뮤지컬
	(음악과연계프로그램) 숲속의 메아리, 오카리나 (기악)
신업중학교	국악 (영남사물놀이 연주하기)
신창중학교	“생활음악” 우쿨렐레 (기악)
아라중학교	우쿨렐레, 오카리나, 기타반 3개의 기악반 운영
애월중학교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클래식 기타 중 선택 1 악기 프로그램 운영후 학급음악회로 발표회를 한다.
오현중학교	Play the music! (학급별 기악연주)
오름중학교	(음악수업 연계프로그램) “소리로 어울리는 마음 우쿨렐레 연주 (기악)
저청중학교	락 밴드 (기악합주)
제주동여자중학교	“생활음악” 우쿨렐레 연주
제주동중학교	오케스트라 합주 (기악), 기타연주 (기악)
제주서중학교	신나는 기악합주 (기악)
제주여자중학교	꿈을 찾아서 :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음악에 맞춰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짐
제주제일중학교	클래식 기타 (기악)
제주중학교	합창
제주중앙여자중학교	클래식 기타연주 (기악)
제주중앙중학교	우쿨렐레 (기악)
조천중학교	청솔윈드오케스트라 관악합주 (기악), 하모니 합창
추자중학교	“생활음악” 나의살던 고향은 이라는 주제로 오카리나, 관악기, 타악기를 연주하는 기악 프로그램
탐라중학교	클래식 기타, 합창,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운영함
한라중학교	클래식 기타, 합창 프로그램을 운영함
한림여자중학교	클래식 기타 (기악)
한림중학교	국악, 우리고장의 생활 속 노동요를 몸동작과 함께 익히며, 그 밖의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음악의 전반적 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속에서도 우리음악을 즐길 소양을 기름

#### 4)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발적, 자율적인 학생 중심 활동이다. 자치적, 자율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의 희망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다.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그룹사운드 활동이 총 12개교에서 시행이 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자율동아리 형태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 난타 5개교, 관악양상블 3개교, 실내악 양상블 4개교, 오케스트라 3개교, 풍물 2개교, 타악 퍼포먼스 2개교, 취타대 1개교 등등 여러 가지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과 교내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이 되었다. 동아리 활동이 많이 개설되어 운영되어 있는 학교로는 신업중학교로 록 밴드, 사물놀이, 합창, 플루트, 우쿨렐레, 포크기타, 총 6개의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림 여자중학교는 난향 팝스 오케스트라(기악합주), 취타대, 록 스쿨(그룹사운드), 통기타 4개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고루 편성되어 있었다. 이외에 교내 관악 오케스트라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는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전국 대회 준비 및 교내 행사 준비를 함께 하고 있었다. <표 10>

고산중학교 음악 관련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은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오카우크” 오카리나와 우쿨렐레 등의 악기 앙상블로 인원은 15명이었다. 음악교사가 담당하였고 음악실에서 매주 수요일 7교시에 수업을 운영하였다.

귀일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은 “한빛 소리” 기악 앙상블과 “판타스틱 동아리” “피아노 듀오”, “클래식 기타” 활동을 하였다. 외부강사와 음악교사가 담당하였고 음악실에서 수업이 운영되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교내 체육관에서 귀일향 축제에서 동아리 발표회를 하였다. 김녕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은 “난타” 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가 수업을 하고 격주로 6교시부터 7교시까지 블록타임제로 운영이 되었다. 다른 한 주는 동아리 활동으로 난타 수업을 운영하고 한주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노형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은 “실내악 동아리”와 “난타”수업을 음악교사와 외부강사가 수업을 하였고, 음악수업과 연계하여 “악기 연주하기”라는 주제로 기악 모듬별 협동학습과 기악 실기로 평가하였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는 음악 관련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은 “음악 사랑반”이라는 주제로 반가와 합창 활동을 하였다. 음악교사가 음악실에서 수업을 하였고 세화중은 그룹사운드가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성여자중학교는 금요일 5교시, 6교시, 7교시 격주로 동아리 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활동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첫 번째 “그룹사운드”로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며 교내 행사 및 공연 참가(셋별제등)를 한다. 두 번째로 “풍물”은 교사와 외부강사가 수업을 운영하고 전통음악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 연주 방법 및 기본 가락을 익힌다. 전통 타악기에 알아보고 연주하여 본다. 셋째로 “합주” 프로그램이 있다.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시대별 음악을 알고 표현하는 합주 활동과 활동 결과를 교내 축제인 셋별제에서 발표를 하였다.

신업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록 밴드, 사물놀이, 합창, 실내악 합주, 난타, 플루트, 우쿨렐레, 바이올린, 포크기타 활동이 운영되고 있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교내에서 “뽕지빌레 동아리 축제”라는 주제로 동아리 발표회를 하였다.

신창중학교 자유 학기 동아리활동으로 연극반이 개설되어 있었고 방과 후 교육 활동에서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신화창조 밴드”, “기타 동아리”, “플루트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하였다.

아라중학교 음악 관련 자율 동아리활동은 “ROAS (Rock of ara school)” 이름으로 밴드 동아리 수업과 “풍물”수업이 있었다. 1월 9일 수요일 학생문화원 “아라중의 아라 주는 이야기” 아라 예술제에서 발표를 하였다.

애월중학교 음악 관련 자율 동아리활동으로 그룹사운드 활동을 하였다.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교내 체육관에서 “해망제” 발표회를 하였다.

오현중학교 음악 관련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은 “파바로티” 프로그램명으로 발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곡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오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으로 공예반, 코딩반등 14개 부서가 운영이 되며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투 SA(미술동아리), 밴드 라온, 방송반, 오일러(수학동아리) 등이 운영이 되었다. 2학기에 동아리를 13반에서 14개 반으로 재편성

하여 총 17시간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동아리 부서를 조직한다. (만화, 댄스, 탁구, 코딩, 캘리그라피, 공예, 수학 탐구, 과학탐구, 요가 등)

우도중학교 동아리 활동으로는 그룹사운드가 교사에 의해서 자율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였다.

서청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과 음악수업 시간과 연계한 “록 밴드” 활동을 하였다. 산간지역에 있어서 외부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교사 위주의 방과 후 교육 활동을 하였다.

제주 동여자중학교는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고 제주 동중학교는 음악 관련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으로 뮤지컬반,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는 전통 타악 퍼포먼스(국악), 포크 기타반으로 이루어졌다.

제주 서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오케스트라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그룹사운드 활동이 매주 금요일 7교시에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고, 제주여자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매주 금요일 5교시부터 6교시 까지 블록타임으로 오케스트라 반이 개설되어 운영하였다.

제주 제일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는 매주 금요일 6교시에 관악부 수업을 운영하였고, 제주중학교는 자율 동아리로서 그룹사운드 “이글스”가 운영하였다.

제주중앙여자중학교는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난타”와 “관악앙상블”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관악앙상블 수업은 교내 “백합 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매주 금요일 7교시에 교사와 외부강사와 함께 기악합주 수업으로 운영하였다.

제주중앙중학교는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난타” 수업이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개설되어 외부강사에 의해 수업을 운영하였다.

조천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는 “난타”수업과 “관악앙상블”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관악앙상블 수업은 교내 “청솔 윈드오케스트라”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외부강사와 교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였다.

추자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는 “테우리반 밴드”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월요일 5교시부터 6교시까지 블록타임제로 교사와 외부강사가 함께 수업 운영하며, 진로탐색 활동(생활 기술·가정)과 같이 격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탐라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으로 “오케스트라” 반이 전 학년 통합으로 기악합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한라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은 규모가 작은 “실내악 합주”와 “난타” 수업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림 여자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는 외부강사와 교사가 함께 “취타대”, “록 스쿨”(그룹사운드)“통기타 수업이 매주 수요일 오후 6교시에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난향 팝스 오케스트라”의 주제로 기악합주 수업 운영이 되고 있었다.

한림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북연주” 수업으로 국악 타악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하였고, 함덕중학교 음악 관련 동아리활동으로 “그룹사운드” 활동을 하였다.

<표 10>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학 교	음악 프로그램
고산중학교	자율동아리, 오카우크(오카리나와 우크렐레 등의 악기 앙상블)
귀일중학교	한빛소리(앙상블동아리), 판타스틱 동아리(피아노 듀오), 기타
김녕중학교	난타
노형중학교	난타, 실내악 동아리 (기악)
제주대학교	합창
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합창
세화중학교	자율동아리, 그룹사운드
신성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그룹사운드, 합주, 풍물
신임중학교	록밴드, 사물놀이, 합창, 플루트, 우쿠렐레, 바이올린, 포크기타
신창중학교	신화창조밴드동아리(방과후활동), 기타동아리(방과후활동), 플룻동아리(방과후활동)
아라중학교	자율동아리, ROAS (Rock of ara school) 밴드, 풍물반
애월중학교	그룹사운드
오현중학교	파바로티 (발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곡을 익힘)
오름중학교	자율동아리, 라온 그룹사운드
우도중학교	그룹사운드
저칭중학교	록 밴드
제주동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기악합주)
제주동중학교	뮤지컬반, 전통 타악 퍼포먼스 (국악), 포크기타반
제주서중학교	오케스트라, 그룹사운드

제주여자중학교	오케스트라
제주제일중학교	관악앙상블 (기악합주)
제주중학교	그룹사운드 (이글스)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난타, 관악앙상블 (기악합주)
제주중앙중학교	난타 (창의적체험활동)
조천중학교	청솔윈드오케스트라 관악합주, 난타
추자중학교	테우리반 밴드 (그룹사운드)
탐라중학교	오케스트라 (기악합주)
한라중학교	실내악 (기악합주), 난타
한림여자중학교	난향 팝스오케스트라 (기악합주), 취타대, 록스쿨 (그룹사운드), 통기타
한림중학교	음악반 (북연주)
함덕중학교	그룹사운드

## 2.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 30개교에서 2018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교육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음악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개선방향을 연구 분석하였다.

### 1)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음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된 곳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제주 동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추자중학교 총 5개뿐이었고, 다양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진로탐색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은 적었다.

하지만 대구지역은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 방향 및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지역 연계 활동을 구성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MOU) 단체는 100개이며, 각각의 교육지원청에서 체결한 MOU는 동부지원 교육청이 31개, 서부 지원 교육청이 50개, 남부지원 교육청이 20개, 그리고 달성 지원 교육청이 43개 단체이다(대구광역시 교육청, 2015).

다음 <표 11>은 2017년 대구광역시 각 학교의 운영계획서에 따른 음악과 관련된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운영되었던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는 대구학생문화센터

터가 많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는 뮤지컬 및 여러 공연 관람과 예술 문화체험, 지역축제와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고, 경북대학교 음악대학 학과체험 및 여러 연주 관람과 연주 체험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대구 시립중앙도서관은 악기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극단과 소극장과 같은 경우는 직업세계 체험과 여러 예술전문가와 만나 직접 체험하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표 11> 대구지역 중학교 음악 관련 지원 지역단체 및 자치단체 (김민경 “대구지역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내용영역	지역단체	합계
음악 관련 지원 지역단체 및 자치 단체	대구학생문화센터(49), 대구문화예술회관(1), 봉산문화회관(1), 지역 소극장(1), 극단(1), 한국체대리더쉽개발원(1) , 한국정보화진흥원(1, 경북대학교(2), 경북예술고등학교(1), 대구시립중앙도서관(1), 대구교육연수원(1)	61

반면 제주지역은 도내의 한정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단체 및 자치단체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와 제주 동중학교는 다양한 직업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는 수업으로 음악 관련 직업인 힙합 래퍼와 뮤지컬 배우가 초청되어 강연한 수업은 유익하지만, 한정적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수업이었다. 신성여자중학교 뮤지컬 발표회와 연계한 음악수업으로 대학로 엘림홀을 현장견학하여 뮤지컬 배우와의 인터뷰 및 발성 수업을 받았으며, 제주여자중학교 진로체험으로는 섬아이 뮤직아트센터를 방문하여, 공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주제로 직업 실무 체험형으로 학생 28명이 참여하였다. 도 외지역과 도내 음악 관련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수업 프로그램

램을 운영한 부분은 유익하였으나, 한정적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수업이었다.

추자중학교의 진로탐색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했을 뿐 순수한 자유 학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어렵다.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제주학생문화원 및 서귀포학생문화원, 여러 공연시설과 음악 관련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현장체험 및 실무 체험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주지역 많은 학생들에게 음악 관련 직업체험과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성이 있다.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개선방향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제주지역 “진로탐색 활동”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먼저 제주지역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음악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야 하며, 제주 공연시설 및 음악 자치단체들의 “진로탐색 활동”의 음악 관련 직업 체험 및 전문적 강의 프로그램과 음악 관련 전문 직업인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진로탐색 활동” 내의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음악 관련 직업에서 음악교육자, 전문적 악기 연주자, 작곡가, 가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공연기획자, 음악치료사, 전문 편곡자, 사운드 엔지니어, 악기 판매업자, 악기 임대업자 등의 다양한 음악 관련 직업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하고 확장된 직업군들을 학생들이 꿈꿀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학교에서도 빠른 교육 환경 조성으로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과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진로체험활동”의 정착을 위하여 전문적 진로센터 건립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새롭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2)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3개교만이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주제 선택 활동”의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수요와 흥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 관련 외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논술, 창작 글쓰기, 창의수학, 연극 제작, 과학탐구, 체험과학, 항공 과학, 항공 드론, 영자 신문 만들기, 행복수업, 놀이수학이 있다. 교과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토의, 체험, 협동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이 되었다. 예술·체육활동에 비교하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교과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수업 운영이 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귀일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으로 분류는 되어있지 않지만, 자유학기제 교과 수업에서 음악, 미술, 국어, 영어 수업이 융합되어 각 교과 담당교사들과 여러 회의를 걸쳐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 자유학기제 수업에 운영하였다. 음악시간에는 각 나라의 민요와 각 나라의 축제에 쓰이는 음악에 대해서 학생들은 조사하고 교사는 수업을 하였고, 미술 시간에는 각 나라의 대표 미술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사하고 교사는 수업을 하였다. 국어시간에는 각 나라의 대표 문학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은 조사하고 교사는 수업을 하였고, 영어시간에는 각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사는 수업을 하였다. 이 모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각 조별로 발표 내용을 각 나라의 언어로 신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교과 연계 수업을 하였다.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는 학교보다 많은 학교가 음악 프로그램을 여러 교과와 융합형태로 많아져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에서 2018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를 참고한 내용으로 2월에 자유학기제 프로젝트 수업 및 융합 수업 교원연수를 계획하였다. 교내 교과 융합 동아리와 같이 교사연구회가 활발히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과 융합형태의 “주제 선택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물적·인적 풍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의 흥미와 적성 개발에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설문지에 개설하여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개발에 적절한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음악 관련 전문가의 확보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3) “예술·체육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예술·체육활동”내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개설된 프로그램으로는 우쿨렐레와 클래식 기타 프로그램 이었다. 1인 1악기로 악기 운반과 보관이 간편하며 사설 피아노 학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악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유익한 부분이었지만, “예술·체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의 음악 프로그램 주제나 활동 경계의 차이가 없어 음악 관련 프로그램의 경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보완해야 되는 점이다. “예술·체육활동”내 음악 프로그램이 유익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음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교사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수업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예산 문제와 음악 관련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물적·인적 지역자원들을 활용하여 대학, 기관과 음악 관련 단체, 제주지역 다양한 예술시설과 행사 등이 예술·체육 활동의 활용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의 관심이 많고 관련 지도 경력이 있는 학부모나 교내 교사들을 지도강사나 보조강사로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학교의 예산이나 전문 인력 배치 문제 등의 한계에 막혀 프로그램 개발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다양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음악 교과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원하는 음악수업을 한다면 보다 흥미롭고 참여율이 높은 “예술·체육활동”이 될 것이다. 학생의 희망하는 다양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이 음악적 소양과 잠재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음악 관련 진로를 탐

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음악 수업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뮤지컬 수업을 17차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발표회와 연계한 음악수업을 개발하여 뮤지컬 탐방 프로그램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진로체험과 다양한 예술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활동과 연계가 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수업이 될 것이다. 단순히 악기를 체험하고 배우는 활동, 동아리활동과 경계가 모호한 활동이 아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체육활동’의 적극적인 개발과 교사의 창의적 음악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새로운 교육내용을 창의적으로 확장 운영해야 할 것이다.

#### 4)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향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모든 학교가 “동아리 활동”내 음악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자발적, 자율적인 학생 중심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자치적, 자율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고 흥미로워 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학생회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통하여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내 음악 프로그램에서 동아리 성격의 음악 관련 프로그램 ‘예술·체육활동’내 음악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악기를 배우는 기악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고, 자율동아리 형태로 그룹사운드와 오케스트라, 합창 활동 내용에 있어 ‘예술·체육활동’과 차이가 없었다.

학생 주도적으로 자발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동아리를 구성해야 하며, 동아리 운영과 조직에서도 자율적인 학생 중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자율성과 독자적 프로그램 운영이 목적이다. 이에 적절한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많은 “동아리 활동” 내용을 검토한 뒤에 강사와 예산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아리 같은 경우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음악전문 강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전 조사를 하고, 담당교사, 외부강사, 체험활동과 발표회 등을 계획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계획해야 한다. 동아리 프로그램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의 자율적 자치적 동아리 운영이 ‘예술·체육 활동’과의 차별성이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동아리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감과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상승시켜 줘야 할 것이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배우고 활동했던 분야를 발표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특기와 역량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축제와 도내 진로체험활동 등에서 활동 결과물을 여러 학교와 교류하여 합동발표회를 함으로써 동아리 연계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교류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시도들이 효과적인 동아리 활동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조사 및 연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2015)과 제주도 교육청의 자유학기운영계획과(2015,2018) 제주시 교육청의 자유 학기(학년)제 운영 계획 외에도(2018) 각 학교의 2018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 자유 학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의 자유 학기 활동 음악 프로그램의 개설 현황과 자유 학기 활동 음악 프로그램의 분석 및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로 인하여 제주지역 자유 학기 음악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및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대부분의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1학년 2학기에 운영하였고, 시수 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170시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와 한림 여자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시수가 180시수와 187시수로 더 많이 운영되었다.

둘째,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16개교는 혼합모형 (주제 선택+예술·체육 혼합형)으로 운영하였고, 10개교에서 기본 모형, 3개교에서는 자유학년제 시범학교, 1개교에서는 주제 선택 중점 모형으로 운영하고 적용하였다.

셋째,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4개교에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현장학습과 초청 강연을 위주로 진로탐색 수업을 운영하였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진로탐색 수업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의 취지에 맞는 수업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제 선택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제주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3개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음악수업이 아닌 다른 과목수업에 음악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다섯째, “예술·체육활동” 음악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27개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음악 프로그램에서 기악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되었다. 기악 프로그램에서도 우쿨렐레, 클래식 기타, 기악합주 순서대로 수업 운영이 되었으며 “동아리 활동”과 큰 차이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

여섯째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 분석 결과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30개교 중 30개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동아리 수업에서는 예술·체육활동에서 배우는 기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이 운영되었다. 다른 음악 프로그램 목록에서는 밴드 및 합창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예술·체육활동과는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운영에 개선방향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 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2018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및 교육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렵다. 전국적인 범위로 분석 및 조사를 확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탐색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업무협약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기관과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양하게 발전된 직업 형태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직업들을 경험하게 하고, 직업의 변화에 직면하여 진로탐색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하고 유망한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주제 선택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 개발과 효과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설문지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흥미로워 하는 분야를 개설하여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교내 교사연구회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융합형태의 수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더욱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예술·체육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음악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발전시켜 동아리 활동과의 차별성 있는 새로운 수업 개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개선점으로는 자유학기제 내의 “진로체험 활동”과 “주제 선택 활동” 교과 융합형태의 활동을 개발하고, <표 11>의 내용을 참고로 제주지역 음악 지원단체 확보를 많이 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리 활동” 음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학생들의 자치성이 보장된 동아리 활동이어야 하며, 학교 간의 동아리 교류와 지속적인 동아리 발표회를 통한 연계활동 개발을 통하여 학생 중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교육정책이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1974년 3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40년 동안 운영되는 교육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초에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2015년 교육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전국에 실시되고 도입된 시기는 4년밖에 되지 않았다.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자유학기제”가 이상적인 교육정책으로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보다는, 본 연구와 같이 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분석과 연구로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자유학기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교육과정문서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 교육부(2019).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 제주도 교육청. 2018년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계획.

### 학위논문

- 김민경(2019). “대구지역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박수현(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신철균·황은희·김은영(2015)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정진경(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조슬기(2017). “서울·경기지역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실태 및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참고사이트

서울교육웹진

[http://webzine.serii.re.kr/view.jsp?cate\\_level=3&pageNum=3&newsCode=CNT20130510190450413](http://webzine.serii.re.kr/view.jsp?cate_level=3&pageNum=3&newsCode=CNT20130510190450413)

## ABSTRACT

# The Analysis of Music Program for Free Semester in Middle School

- Focusing on 2018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Middle School -

KO, KIL-PYO

(supervised by professor Hur, Dae-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usic program for free semester in middle schools under the supervision of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study methods include the investigations on the action plan for middle school free semester by Ministry of Education (2015), operation plan for free semester by Jeju Province Office of Education (2015, 2018), general operation plan for free semester by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2018), and instruction plans of the respective schools in the year 2018. The investigation will look into the operational status of free semester, present conditions of music programs within the free semester in 30 middle schools under the supervision of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to analyze and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music programs within the free semester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n education policy for free

semester and allowed respective schools to autonomously operate and organize free semester programs. Among the thirty middle schools under the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most were operating their free semest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first year. Also, the number of lesson hours given to students was 170 hours, which was almost the same as that decided by the Office of Education.

Second, among the thirty middle schools under the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sixteen schools were operating based on mixed model (topic selection + art·physical education combined). Basic model was being used in eleven schools. Three schools were designated as the demonstrative schools for free semester, while one school was based on the topic selection-focused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udy proposes plans on music programs within “career exploration”, “topic selection activity”, “art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and “club activity.”

The free semester is a national education policy that helps students acknowledge their aptitude, interest, future dream and talent.

Rather than frustrating and discouraging students, the “free semester”, as an ideal education policy introduced by the national policy, should be further developed of its education programs by maintaining a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constant analysis and investigation on instructional planning to realize its vision.